

우리 도는 중국에 가서 포덕할 때가 되어야 포덕천하를 달성하리라

1면에 이어서

수운 선생이 흥비가에서 『사사상수 師師相授 한다해도 자재연원自在淵源 아닐런가』라고 했듯이 동학은 스승에게 배운다 해도 스스로 깨닫고 장생長生하는 이치를 추구하는 바 교역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수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답변 3: 한문 경전의 한글화 미흡 및 장생長生(오래도록 삶)에 대한 체계적인 교리가 없음 → 추후 통일된 교리화 시급

초창기의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데도 일부는 아직도 난해함. 현대어로 개작하는 데 소홀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판도 당연히 없음.

질문 4: 한류의 세계화와 더불어 한국의 민족종교인 동학 천도교가 세계화 될 가능성은

답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변을 하기 전에 모든 종교에는 기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 현상이 있었기에 신도들이 모여들어 종교화되었는데 그 기적 현상은 자연의 일부인데 계속 그 기적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특정 종교의 기적 현상이 계속 일어났다면 종교는 하나로 통일되었을 것이고 종교로 인한 분쟁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며 선함과 악해도 함께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선함만 존재하여 이미 지상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끔 나타나는 그 기적 현상을 경계한 종교가 동학 천도교입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은 그가 남긴 기타법설(동경대전 해월신사 편 참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독실히 공부할 때에 억수같이 내리는 비 가운데서도 옷과 두건이 젖지 아니하였으며 능히 구십 리 밖에 있는 사람을 보았으며 또 능히 바르지 못한 기운을 그치었으며 조화를 썼으나 지금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끝었노라 원래 이것들은 다 작은 일이요 대도의 바른 도리가 아니라. 대신사(수운 최제우 선생)께서 조화를 쓰지 아니하심도 또한 이에 원인한 바니라.』

해월 선생이 36년간 도교 생활을 하며 동학 전파에 목숨을 바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 현상에 대해서 동학 관련 문집이나 천도교 창건사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적 현상을 추구하지 말라고 선생은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면 잘못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일 터.

비화祕話를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3대 혁명적 운동(1894년 동학 농민혁명, 1904년 갑진개화운동, 1919년 3.1운동)을 지도한 의암 손병희 선생이 동학혁명 당시 복적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전봉준 장군과 함께 일본군과 조선 관군 연합군을 상대로 전투를 했는데 패전 후 피신하는 과정에서 해월 선생을 만나 묻기를 “선생님, 저의 도포자락에 총탄 흔적만 있고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라고 은근히 자랑하자 해월 선생이 답하시기를 “그대는 시천주侍天主(하느님을 모심)하지 않는가? 초부(樵夫-나무꾼, 땀 나무를

하는 사람)나 농사꾼이 자랑하듯이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옛 사람들은 한울님이 하늘에 있는 줄 알고 허공을 향해 절하곤 했는데 우리 동학은 한울님이 허공에 있지 않고 내 몸에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자네는 한울님을 모시고 전쟁을 했었는데 어찌 그런 질문을 하는가? 어찌 총칼이 자네 몸을 뚫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꾸짖었다는 일화가 있다,

세계인들이 한국문화에 매료되고 있는 현재에, 온 세상의 대운이 우리 한국으로 온다는 동경대전의 구절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K-POP, K-Culture(문화)에 열광하는 현시점에서 동경대전의 곳곳에 그 구절이 녹아 있음을 전제로 필자가 서술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고문서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잠깐 회고하자면, 귀하는 우리의 역사서 가운데 정사正史나 야사野史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믿는지요? 더구나 야사에는 정사 못지않게 정확한 기록도 있는데 단지 국가가 공

인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일례로 삼국유사에는 백제 멸망과 관련한 기록에서 『당나라 소정방이 660년 6월 8일 대규모 함선을 이끌고 중국 산둥성을 출발할 당시 함선 1900척이 동원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정사인 삼국사기에는 『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1000리를 이어 물결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합니까? 귀하도 알고 나면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사보다 야사 기록이 더 정확한 표현을 했다는 것을.

대표적인 야사인 삼국유사에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UFO(미확인 비행물체: unidentified flying object)와 관련된 이야기로 신라의 김유신 장군 부하들이 패전의 위기에 김유신 장군이 기도하자 독(항아리) 모양의 별이 날아와 적군을 무찔렀고 그 별이 날아간 산을 성부산星浮山으로 불렀다는 설화 등 여러 신비한 이야기가 제법 실려 있습니다.

성심수련(誠心修煉)으로 본래의 성품을 바꾸라

문제는 본고에서는 우리의 기록 DNA가 타민족을 능가하기에 많은 문화유산이 유네스코UNESCO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150년 전 척박한 조선 민중의 삶속에서 주옥같은 수운 선생의 유교(鑑稿 翫草 동경대전)를 조선 정부의 감시를 피해 간행한 해월 선생의 그 업적은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천운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아니 반드시 우리의 동학사상도 UNESCO에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라 필자는 확신하면서 수운 선생에 이어 해월 선생과 의암 선생의 동학, 천도교가 변창할 시기를 예언한 설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월 선생의 예언: 선생의 개벽운수開闢運數법설에서 『우리 도는 중국에 가서 포덕할 때가 되어야 포덕천하를 달성하리라』 중국에서의 포덕 시기는 탄허 스님(1913-1983)의 여러 예언 [중국이 5개 내지 6개 나라(대한 포함)로 분열되고 중국의 동북 3성이 한국으로 편입된다고 예언했었다] 중 하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제자가 해월 선생께 묻기를 “어느 때에 현도顯道가 되겠습니까?”

신사(해월 선생) 대답하시기를 『산이 다 검게 변하고(산림녹화 사업으로 산에 나무가 많을 무렵) 길에 다 비단을 펼 때요(아스팔트로 도로 포장)이 됨을 비유) 한국과 교역할 때이니라』 묻기를 “어느 때에 이같이 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기후 변화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리라는 예언은 실로 놀랍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되고 해수면이 1cm 높아지면 해안선은 1m 즉 100cm 사라진다고 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법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왕조의 멸망과 등장 등등 일종의 운으로 인해 미래를 예측한 것을 자주 접합니다. 개인의 일생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사는 물론 세계사를 회고하건데 미래를 예견하는 소위 예지력을 지닌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100% 적중하는 경우는 없고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예언하다보니 그 중에서 몇 개가 적중하면 소위 옳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사도 난치병 환자를 50% 이상 적중 진료를 하면 명의의 반열에 오른다고 합니다.

무당들이 발뺌이를 할 수 있는 것은 한두 번은 적중하기 때문이며 이는 혹 세무민하는 것일 터입니다.

조선의 망국과 관련하여 무당 이야기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임오군란(1882년)의 원인이 명성황후 민비 탓인데 이후 을미사변(1895.10.8)으로 일국의 왕후가 일본군의 궁궐난입으로 비운悲運에 사망했지만 이보다 앞서 임오군란 당시 그녀는 궁녀 복장을 하고 간신히 충주로 피난 가서 한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 무당이 환궁하는 날까지 정확히 예언하며 민비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고종은 이미 민비의

장례식까지 치른 후였습니다. 그 무당은 진령군이라는 벼슬까지 얻어 국정을 농단했고 고종과 민비는 무당의 말을 신뢰하고 국가 대소사를 결정한 우리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청일전쟁 이듬해 일본군에 의해 민비가 살해된 이유도 독립국 조선에 청군을 불러오게 한 사건과 청일전쟁에 일본이 승리하자 이제는 러시아에 의존하려고 한 민비 탓일 것이라(필자는 일본군의 만행을 저주하고 있으며 일본을 두둔하는 것이 아님)고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했다라면, 진실은 하나인데 인간들의 상상력으로 그 평가가 긍정과 부정으로 항상 양분되기도 합니다. 훗날 독립협회 회장을 역임한 윤치호 선생이 말씀하기를 『그 영리하고 이기적인 여인이 미신 섬기는 것의 1/2만큼만 백성을 잘 섬겼더라면 그녀의 왕실은 오늘 안전했을 것이다』라고 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세계사를 보면 이러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고대 중국 땅에서 은나라가 주나라에 멸망당한 것, 촉나라가 제갈량 사후 멸망한 이유, 러시아제국이 무너진 이유 등등 모두 미신을 믿고 국정을 농단한 탓입니다. 무당, 사이비 종교 교주 등의 그러한 신비한 능력은 일시적이며 봄날의 바람처럼 왔다가 가을 바람의 낙엽처럼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일종의 자연 현상인지...

(3면 하단 계속)

역사 이야기를 하다보니 UFO관련 필자의 간접 경험담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30년전 대한민국이 외환위기(1997.11.21.) 당하기 수년 전부터 해외여행객 증가로 조종사가 부족하여 외국출신의 우수한 조종사를 영입하여 운영했었는데, 필자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항공법을 약 3년간 약 100여명에게 강의하면서 반드시 문의하기를, “귀하가 운항 중 UFO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들 중 5%정도는 “확실히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각국의 야사(특히 중국 사료)에도 이러한 기록물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사진술의 발달로 UFO를 촬영한 사진이나 또 1947년 7월 미국의 『로스웰 사건』은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세이건 및 다수의 천문학자들은 이 광대한 우주에 우리 인류만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UFO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공식적으로 긴가민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기현상을 공론화하면 사회적 혼란은 물론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현대의 첨단 물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이러쿵저러쿵한들 그들이 지구를 살려내지도 않을 뿐더러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지구인들의 전쟁에 침묵했던 그들이기도 합니다.

(하단에 계속)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썩은 피, 죽은 세포가 원인인 ‘신경통’
‘Neuralgia’ Caused by Rotten Blood and Dead Cells

사람의 생각때문에 피가썩으며, 썩은 피는 세포를 조성할 수가 없다.
→ Because of impure thoughts, the blood becomes corrupted, and such tainted blood cannot create healthy cells.

몸의 세포는 피로써만들어지고로,
맑은 피로 이루어진 살과, 더러운 피로써 조성된 살이 다르고,
그 살의세포가 다르다.
→ Since every cell in the body is formed by blood, flesh made from pure blood differs from flesh made from impure blood—each has a different quality of cells.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맑은 피로써이루어지면,
뇌,간,심장,세포 등 모든 기관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 When a person’s body is formed by God’s pure blood, the brain, liver, heart, and every cell and organ become complete and whole.

그러나썩은 피는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 However, corrupted blood gives rise to many kinds of diseases.

신경통이라고하는 것은 죽은 ‘신경세포’가 인체를 돌아다니면서
악한부위를 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 Neuralgia occurs when dead nerve cells wander through the body and strike its weak parts.

이 죽은 세포가바로마귀세포요,마귀의물질이다.
→ These dead cells are what can be called ‘demonic cells’—matter of the adversary that disturbs the harmony of life.

그런고로피만맑힌다면 사람은 다시젊어질 수 있으며
각종 병마도 거뜬히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다.
→ Therefore, if one’s blood is purified, the body can regain youth and easily overcome all forms of illness.*